

## 사라지다

김나연

내가 그 외진 곳으로 간 후 처음 한 건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폭이 넓은 강줄기였다. 바다로 이어지는 강줄기라 간혹 바다에서만 나던 물고기가 난다기에 나는 그 강줄기를 눈여겨보면서 다짐했었다. 아버지나 형과 함께 와 보자. 아니면 혼자여도 좋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설레여 낚시만 생각하던 나와는 반대로 부모님 두 분과 나이 많은 형은 그 곳을 별로 달갑워 하지 않았다.

트럭 두 대에 살림을 나누어 실어 돌아온 우리 가족은 그 곳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충분했다. 일이 잘못되어 도망 왔다더라, 도시네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겠나, 곧 돌아갈 테지, 따위의 말들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것을 구지 티내며 싫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시지는 않으셨다. 다만 나와 내 형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두 분만 대화를 이어가실 때, 어머니는 어서 이 촌구석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이따금씩 하시곤 하셨다. 아마 이 곳 사람들에게 자존심 구긴 것을 인정하기 싫어 입 밖으로 말을 잘 꺼내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모님과과는 다르게, 나의 할아버지는 이곳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의 터전이라고, 그의 고향이라고 할아버지는 담담히 받아들였다. 나는 할아버지의 몸에서 풍기는 비린내 섞인 소금 냄새와 바다바람 냄새가 싫지만은 않았고, 형과는 다른 태도로 자신을 대하는 나를 할아버지는 유독 친근하게 대하셨다. 그는 내가 이곳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를 바랐고,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아예 뿌리를 박기를 바랐다.

한편, 나는 이곳에 오던 첫 날 영이를 만났다. 어머니가 부랴부랴 급히 싸 온 살림을 작은 방 안에 넣을 수 없어 울상을 하고 있던 때였다. 영이는 그 때 대문 너머에서 우리 가족들을, 특히 나를 더욱 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에서만 보던 하얗고 깨끗한 소녀들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까무잡잡하고 촌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였다. 하지만 눈은 누구보다 크고 깨끗했고, 시골소녀답지 않은 총기는 도시의 그 어느 것보다 더 빛나는 것 같았다. 깨끗하게 빛나는 아이. 마치 그 곳의 강처럼 반짝이는 아이였다.

“아까 그 애 우리 셉이랑 또래죠?”

“그렇겠지 뭘.”

“그럼 앞으로 셉이랑 잘 놀겠네.”

어머니는 어느 샌가 후다닥 달려 나간 영이를 두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온 후의 며칠 동안은 영이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고, 그나마 가끔 봤던 게 강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 그것도 아니면 단발머리를 나무끼며 이곳저곳을 달려가는 모습이였다.

내가 영이를 가까이서 본 건 가지 밭에서였다. 지나가다가 흘러 들은 말로, 강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가꾸는 밭이 몇 개 있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함께 가꾸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놀러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강 쪽으로 나와, 강 옆으로 난 길을 따라서 쪽 걸어가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올 걸 대비해서인지, 강과 길의 높이는 꽤 되었다. 내 키만 했다. 비가 온 지 엄청 오래 되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데도 모르겠다.

길을 따라서 쪽 올라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보였다. 논에서 할머니 여러 명이 흥얼거리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서 있는 논은 여름별을 받아서 약간 더워 보였다. 냄새도 났다. 하지만 나쁜 풍경은 아닌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신기했고 좋았다. 길을 따라 올라가는 발걸음이 슬슬 느려지기 시작했다. 진돗개 한 마리가 길에 길게 누워 있었다. 거대한 참나무 그늘 아래에서 혀를 옆으로 쪽 내밀고 헉헉댔다. 조금 더 걸어가니 어느 아저씨가 눈에 오리를 풀어놓는 게 보였다.

“아저씨, 가지밭 어디 있어요?”

“어어-? 아, 너 갈매 할아버지댁 애구나. 저어쪽 위로 올라가 봐라.”

아저씨는 손가락으로 두 갈래길 너머에 있는 곳을 가리켰다. 나는 고맙다고 소리친 뒤 그 쪽으로 타닥타닥 달려갔다. 땀에 흠뻑 적셔진 티셔츠가 몸에 찰싹 달라붙었다.

“아싸, 도착!”

나는 가지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털썩 주저앉았다. 집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았다. 좀 돌아온 것 같기도 했다.

“안녕?”

다리를 쪽 뻗고 가지밭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내게 말을 걸었다. 화들짝 놀라 토끼눈을 하고 옆을 보는데, 거기 영이가 배실배실 웃으며 서 있었다.

“아, 안녕.”

“이거 마실래?”

영이는 들고 있던 작은 패트병을 내게 건네 보였다. 나는 얼떨결에 받아 쥐었다.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올챙이도 가득 차 있었다.

“.....”

“에헤헤헤. 장난이야~”

영이는 나를 이끌고 가지밭 안으로 들어갔다. 가지밭 안은 의외로 시원했다. 모기가 짹짹 달라붙었지만 여의치 않을 만큼 시원했다.

“자, 마셔!”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병을 건네주었다. 나는 여기엔 또 무슨 장난을 쳤나 싶어서 머뭇머뭇 했지만, 영이는 어서 마시라고 날 재촉할 뿐이었다. 여자애들과 말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그냥 그 애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다. 영이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히- 하고 웃었다. 아랫니 두 개가 빠지고 없었다. 영이는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이윽고 나를 이끌고 마을 이 곳 저곳을 구경시켜주기 시작했다. 사실 이미 마을은 몇 바퀴 돌아보았었고, 이젠 더 이상 신기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며 영이의 뒤를 졸졸 쫓아다닌 게 그 날 하루의 전부였던 걸로 기억한다.

영이 얘기가 나오면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전교생이라고는 겨우 6명이 전부였던 초등학교가 파해 영이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언제나 그는 그 곳 강터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을 것 같았다. 씻은 건지 씻지 않은 것인지도 모를 누덕누덕하고 께죄죄한 옷이나, 언제 감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름이 번들거리고 비듬이 잔뜩 끼인 회색 머리라던지 하는 것들이 그에 대한 내 첫 기억이었다.

“우리 할배다.”

영이는 썩은 나뭇잎이 달린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다. 내가 뭐 저런 거지가 다 있나 싶어서 입을 헤 벌리고 그를 보고 있을 때였다. 갑작스런 말에 나는 펄쩍 영이를 돌아보았다. 이런 똑똑한 애에게 저런 거지 할아버지가 있었다니! 영이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할아버지? 진짜루?”

“응, 우리 할배. 울 할배, 맨날맨날 저기서 물고기 잡으신다?”

자랑스럽다는 투의 말이었다. 아직 도시냄새가 묻어나 있는 나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할아버지야 바다가 고향이라고 이곳을 좋아한다 치면서도, 물고기야 그

냥 사 먹으면 될 텐데.

“물고기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

“안 먹어도 그냥 잡는 건데.”

“왜?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여기서 잡는 물고기들은 아무도 안 사간대.”

“우리 할배, 물고기 안 팔어.”

“그러면? 그냥 집에서 키워?”

“그냥 다시 놔 주시는데.”

“거짓말. 그럼 왜 잡는데?”

“거짓말 아니야! 따라와 봐. 내 말 맞아.”

영이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 손에 들었다. 책가방은 근처 바위 사이에 끼워 숨겼다. 영이는 익숙한 듯이 강 속으로 들어갔다. 신발과 양말은 두 손에 꼭 쥐고 물 밖으로 든 상태였다. 목 바로 밑까지 차오른 물이 찰방거렸다. 햇빛이 물에 비춰져서 반짝반짝 빛이 났다. 영이는 몇 걸음 휘휘 가더니 뒤돌아 나를 불렀다.

“들어와! 여기 안 깊어.”

“싫어, 위험해 보여.”

“겉쟁이 같은 게.”

“물뱀이 나올 거야.”

“여긴 물고기 밖에 없어. 봐, 다 보이잖아.”

영이의 말 대로였다. 물속이 투명하게 다 보였다. 흔들거리는 수면 밑으로 작은 물고기가 은빛 비늘을 뽐내며 쏜살같이 지나갔다. 영이 말대로 그리 깊어 보이지도 않았다.

“어서.”

영이가 날 두어 번 더 재촉했을 때야 나는 영이가 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물로 들어갔다.

강은 아름다웠다. 반짝이고 또 반짝였다. 요정이 가루를 뿌린 것 같았다. 작은 물고기가 비늘을 빛내며 무리를 지어 헤엄쳤다.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근데 저 가운데는 조심해야 돼. 귀신이 산다는데, 땅 밑 깊숙한 데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잡아 간다고 했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우리는 반대편에 도착했다. 훌쩍 젖은 채로 우리는 낚싯대를 드리

우고 있는 노인의 옆으로 갔다. 오른쪽에는 미끼 통을 놓고, 간이 의자에 앉아 낚싯대를 가만히 붙잡고 있는 노인은 신선처럼 이상스런 구석이 있어 보였다.

“뽵뽵, 우리 할배 물고기 가두는 거 없잖아.”

영이의 말 대로였다. 노인의 옆에는 미끼 통과 끼니거리만 있을 뿐, 물고기를 담는 통도 그 무엇도 없었다.

“할배!”

영이는 노인의 팔을 끌어당기며 그를 불렀다. 노인은 느릿느릿 영이를 돌아보았다. 순간 나와 노인의 눈이 마주쳤다. 노인은 둔해 보였다. 그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다시 시선을 강으로 돌려 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서 있다가, 영이가 이끄는 대로 다시 강을 건너 되돌아 왔다. 젖어버린 신발과 양말을 바위 위에 널고 옷을 짜는데 커다란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올라와 우리 앞에 멈춰 섰다. 유리창이 부드럽게 내려갔다.

“꼬마야, 여기가 중별마을이니?”

회색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차 안에서 우리들을 번갈아 살피더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물었다. 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물었다.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러나 아저씨는 말없이 다시 유리창을 올려 버렸다. 그리고 검은 자동차는 좁은 마을 길을 짹 메우며 가 버렸다. 꽤 불친절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일 거야. 분명해.”

나는 말없이 뚱하니 자동차가 사라진 길목을 보는 영이에게 말했다. 그러나 영이는 아무 대답 없었다. 다만 우울하게 침묵을 지키는 뿐이었다.

“자아! 자아!”

문득 괴기스러운 소리가 강 저편에서 들려왔다. 갈라지고 쉼 목소리였지만 크고 뚜렷하게 귀에 들려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강 저 편에서 영이의 할아버지가 미끼통에서 미끼들을 꺼내 강에 뿌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자아, 자아! 그는 마치 기르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았다.

검은 자동차와 양복 입은 아저씨가 다녀간 뒤의 마을은 꽤나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어른들은 강의 상류에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공장이 다시 되살아 날 거라며 속덕거렸다. 아마 어중간한 터의 마을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농사나 어업은 곧 끝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조용조용 돌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 아빠도 거기 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할 걸? 가실 것 같지도 않구.”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가면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다. 배 위에서 먹고, 배 위에서 자고, 배 위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여도 집 안 사정은 속속들이 알고 계셨다. 그리고 바다 좋아하시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공장취직을 반대할 거라는 사실은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이었다.

형은 뭐가 불만인지 툭툭대며 옷에 자꾸 묻어나는 먼지들을 털어냈다. 묘하게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 또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다.

나는 집에 있기도 싫어하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는 형을 두고 밖으로 나왔다. 할아버지는 바다에 나간 지 며칠이나 되었다. 오늘쯤 돌아오신다니까 강어귀에서 그를 맞이할 생각이었다. 또 영이와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나는 울퉁불퉁한 길 몇 분 걸어 영이네 집 대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없는 모양이었다. 영이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영이네 집의 낡은 시멘트 담장에 그려진 낙서들을 보며 다시 길을 따라 걸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골목이었지만 나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없는 낡은 마을에서 아이의 낙서란 이다지도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 그래서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 그 쓸데없는......”  
“그럼 재개발..... 또 강도 개발해서..... 땅값도...”

떡엄떡엄, 나는 어려운 단어가 들리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가던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골목 맞은편에서 양복을 입은 아저씨 세 명이 걸어오고 있었다. 걸음은 단호하고 빨랐다. 얼굴에 서린 표정들은 하나같이 느글느글했다.

“그럼 여기도 저기도, 모두 헐어버리는 걸로요?”  
“그보다는 밥줄을 끊는 게 우선이지.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단 지들이 오게 해야

후환이 없어.”

“사장님, 그럼 어떻게……?”

“그냥 다 흘려버리면 되지. 여기 촌놈들은 강줄기 때문에 먹고살잖나. 바다 것들도 뚝바다 위에서 뭘 하겠어. 농사짓는 것도 그냥 강 막으면 끝이고.”

“시민단체나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나. 또 이런 깡촌에 불 일이 뭐가 있다고 우우 물려들겠어. 입 단속만 잘 하면 돼.”

그들이 가까이 올수록 대화는 또렷하게 들렸다. 계속 보니,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란 원을 그리며 이게 좋다고 말하는 배불뚝이 아저씨는 사람보다는 돼지를 더 닮은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쁜 짓을 꾸미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다. 만화 속 악당들처럼.

그들은 저들을 힐끔거리는 내가 신경 쓰이는 듯 했지만 그냥 계속 걸어가며 그들만의 이야기를 계속 했다. 나는 그들이 우리 집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지만 따라가지는 않았다. 딱히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할 것 같지는 않았고, 나는 나대로 불일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영이가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나 하고 학교 쪽으로 걷고 있었다. 영이는 책을 좋아했다. 특히 ‘날으는 공룡 엘마’를 좋아했다. 그 애는 집에 없을 땐 도서관에 있었고, 도서관에 없으면 제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노인의 옆에서 ‘날으는 공룡 엘마’를 읽는 게 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 중 하나였다. 계속 걷다 보니 노인이 보였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거지같은 물골을 하고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별이 따라왔기 때문인지, 오늘은 커다랗고 낮은 밀짚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늘에 드리운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나는 노인 뒤를 지나가며 슬쩍, 그의 옷깃을 건드렸다. 그러나 그는 내 쪽을 흘깃 보았을 뿐, 별 다른 반응 없이 다시 그 특유의 멍하고도 맑은 시선을 강을 향해 돌렸다. 나는 웬지 그 노인을 더 이상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얼른 달음박질을 해 학교로 뛰어 올라갔다.

학교 도서관에도 영이가 없어 나는 꽤 실망을 했다. 내가 본 것이라고는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아까의 그 양복쟁이 돼지 아저씨들이 함께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 장면 뿐 이었다. 나는 영이는 어디 갔나 하고 학교에서 얼른 벗어났다. 강가를 걷다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물속에 들어갔다. 발목을 잠그는 물이 웬지 기분이 좋아, 나는 그렇게 강을 따라서 쭉 내려갔다. 영원한 여름방학인 것 같은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내가 점점 더 강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영원히 여기서 이렇게 사는 유쾌한 상상까지 하며 흥얼거렸다. 그리고 곧 나는 다시 노인과 만났다.

노인은 나쁜 표정으로 낚아 올린 물고기를 다시 물속으로 보내고 있었다. 그는 낚시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낚시대를 확 휘둘렀다. 나는 그대로 그의 앞까지 침범거리며 걸어왔다. 노인의 측면에 멈춰 서서 그를 한참 보고 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나를 별 신경도 안 쓰던 노인이 갑자기 나를 바라보았다.

“.....”

나는 별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했고 검버섯도 피어 있었다. 동시에, 그는 놀랍게도 도시의 보통 노인들과는 한참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사장님의 위엄이나 냉정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속성의 어떤 대단한 그런 얼굴이었다.

그는 한참동안이나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낚시대를 받침대에 내려놓고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벗었다. 그는 그 넓고 큰 밀짚모자를 내 머리에 씌워주었다. 노인 냄새와 햇볕냄새가 나는 밀짚모자였다.

“이건 뭐예요?”

“... 나는 곧 돌아갈 테니까... 도시 아들은 하야니까.....”

그는 몇 마디 중얼중얼 하더니 낚시대를 들고 다시 시선을 강으로 돌렸다. 나는 강에서 나와 그의 옆에 앉았다. 슬슬 따가워져가는 태양이 등을 내리쬐어 땀을 흐르게 했다.

“할아버지 안 더워요?”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으나 그는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끼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회색과 흰색이 섞인 수염이 염소 같다고 생각하며 그 수염을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노인은 한참동안 조용히 강만 바라보다가 내가 지겨워서 슬슬 일어나려고 할 때 째 에야 입을 열었다.

“사람이 만든 일을 사람이 못 버티야 되겠나.....”

무슨 소린지 몰라 눈만 말뚱말뚱 굴리는데 노인이 낚시대를 위로 확 당겼다. 미끼를 잃은 낚시바늘이 햇볕에 따갑게 빛났다. 노인은 다시 미끼를 끼우고 확, 낚시대를 던졌다. 퐁, 하고 맑은 소리가 강으로부터 들려왔다. 여전히 반짝이고 있는 강 수면이 작게 요동쳤다.

“하늘에 커다란 구멍이 났제…… 옛날에는 안 이랬을 까다. 작년에 장마가 안 왔었 제… 예전에는 안 그랬다. 올해도 안 오면… 곧 하늘이 별하실까다.”

“하늘이요?”

노인은 다시 침묵했다. 나는 그게 누구냐고 묻고 싶었으나 꼭 참았다. 아마 하느님이 나 부처님이겠지? 다시 강변을 바라보는데 노인이 덧붙이며 말했다.

“그래, 하늘님이.”

노인은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낚싯대를 거둬들였다. 간이 의자도 접고 낚싯대를 정리했다. 그는 미끼통 옆에 놓여 있던 봉지에서 찹쌀떡을 꺼내 들었다. 노인은 흰 찹쌀떡 하나를 내게 쥐어 주고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강 위에다가 던지기 시작했다. 퐁! 돌을 던진 것보다 훨씬 맑은 소리가 돌아왔다.

“고시레!”

그는 쉼 목소리로 외쳤다. 고시레, 고시레! 그는 계속 그리 외치며 찹쌀떡들을 강으로, 그의 물고기들에게로 계속 던졌다. 나는 그게 웬지 신성하고 무서운 의식 같아서 전율 같은 것을 느끼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처음 노인을 봤을 때가 기억났다. 그 때 그는 미끼를 던지며, 자아! 하고 외치고 있었다. 왜 ‘자아!’가 ‘고시레!’로 바뀐 걸까?

막 그리고 있는데 검은 자동차가 이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왔다. 매연을 토해내는 자동차가 웬지 낯익기도 하면서 동시에 거북스러웠다. 내가 자동차를 빤히 보는 데 반해 노인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밀짚모자를 잡아당겨 깊이 눌러쓰며 자동차의 유리문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홀쭉한 아저씨가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지! 어제 말했던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저씨는 서류봉투와 볼펜을 창밖으로 스윽 내밀었다. 마치 노인이 그 사인이라는 것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태도였다. 하지만 노인은, 아저씨가 그러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없는 눈치였다. 그는 이번에는 미끼통에서 미끼를 강가로 던지며, 자아, 자아! 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거 할아버지!”

“딴 사람 찾아봐라.”

갑자기 노인은 뒤돌아서며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목직한 저음이 무섭게 들렸다. 하지

만, 하고 아저씨가 입을 열었지만 노인이 그의 말허리를 끊으며 말했다.

“다른 마을로 가라. 여긴 절대 손 댈 생각 말고.”

운전사 아저씨가 어깨를 으쓱 하더니 차를 부웅 몰았다. 뒷좌석에 앉아 있던 아저씨가 경멸의 빛을 담은 눈초리로 노인을 보는 게 언뜻 보였다. 노인은 그들이 남긴 회색 연기를 바라보다가 흐음, 하고 한숨소리를 냈다. 처음 듣는 노인의 한숨소리였다. 나는 노인의 수염을 보며 생각에 빠져들었다. 왜 자동차 아저씨들의 회색과 노인의 회색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온통 수수께끼였다. 노인은 미끼통을 짝 비우고 강에 한 번 행구더니, 강가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 했다. 나는 노인의 미끼통을 꺼안고 그와 나란히 걸었다.

“고시레가 뭔지 아나.”

노인이 나를 향해 말했다. 물어본 것 같기도 했다. 그의 시선은 먼 바다를 향해 있었다. 높은 건물 하나 없이 탁 트인 전경 저 너머 수평선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더운 빛에도 역시나 바다는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왜 바다가 반짝이는 줄 알고 있었다. 그 건 강이 빛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다도 빛나는 거다. 나는 물론 강이 빛나지 않으면 바다도 빛나지 않으리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아, 그런데 고시레?

“내 먹는 음식을 나눠 먹는 거다.”

노인은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말해 버렸다. 그의 시선이 이번에는 바다에서 너울대는 새들을 쫓았다. 갈매기 같았다.

“아가, 넌 여기 정붙이지 마라. 여기 남는 건 내랑 니 할배만 있음 된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슬프게 들려야 할 말인데, 슬픈 음성도 아니었고 절망한 음성도 아니었다. 그는 무척이나 담담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 보았다. 강의 상류를 향해서, 뒷산에 조금 가려진 회색 공장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바쁘게 움직였다. 공장의 굴뚝으로부터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쌍놈의 새끼들이.”

노인은 입술을 썩룩였다. 나는 곧 강의 윗길로부터 내려온 영이를 만났고, 그 애가 들고 있는 ‘날으는 공룡 엘마’를 보았다. 그 애는 혼자만의 비밀기지를 빼앗겼다고 내게 말했다. 똑같은 옷을 입은 아저씨들이 똑같은 모양의 노란 모자를 쓰고 비밀기지를

망가뜨렸다고 알려줬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다. 하지만 노인은 아까 쌍놈의... 어찌고 말한 것 이후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깊은 고민에 풍덩 빠져, 나나 영이의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느릿느릿 걸으며, 강을 애뜻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비밀기지를 빼앗긴 영이는 나에게 새 비밀기지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이는 내게 비밀기지의 조건 세 개를 내걸었다. 하나, 조용한 곳이어야 할 것. 둘, 아무도 모르는 곳이어야 할 것. 셋, 마을과는 적당히 떨어진 곳이어야 할 것. 꼭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영이의 주장이었다.

우리는 며칠을 열심히 뛰어다녔다. 하지만 새 비밀기지를 찾는 일이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기껏 찾아놓은 후보지가 마을에 놓여 있는 낡은 다리 밑이었으니, 할 말은 다한 셈이다. 영이는 차라리 노인의 옆에 텐트를 치는 게 낫겠다고, 그리고 새 비밀기지를 빼앗은 아저씨들이 하루빨리 돌아가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영이는 곧 아동도서 몇 권을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후 노인의 옆에 자리 잡았다.

여름 별에 그을린 여자아이가 낚시만 하는 노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것은 분명히 예삿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마을의 일부로 녹아버린 듯 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무참히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노인이 지키던 강물에 더러운 검정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건 유독 햇벌이 더 강했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엄마가 씌워 준 야구공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영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여전히 낚시를 하고 있는 노인의 옆에서였다. 나는 영이와 함께 땅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폴짝폴짝 뛰며 막 '7'이 적혀 있는 칸으로 향할 때였다. 바람이 불었고, 내 흰 모자가 바람에 날려 강 위로 떨어졌다. 강은 깨끗했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었다. 짹짹한 햇벌에 말리기만 하면 그 누구도 모자를 물에 빠뜨렸다 사실 따위는 눈치 채지도 못할 테니까. 다만 모자가 물에 휩쓸려 바다까지 내려 갈까봐, 나는 얼른 신발과 양말을 벗었다.

“빨리.”

흘러 내려가려는 모자를 꼭 잡고 다시 올라오려는데 영이가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나는 영이가 장난을 치려는가 싶어 일부러 느적느적 기슭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문득 강의 상류 쪽을 보았다. 검고 불쾌한 것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먼저 내려왔다. 멍청하게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노인이 얼른 꼬집어냈다. 보기와는 달리 역센 손이 내 뒷덜미를 잡아 땅에 내팽개쳤다. 덕분에 놓친 내 모자는 건진 보람도 없이 다시 강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검은 물들과 함께 아래로, 강의 하류로, 그리고 바다로 떠내려 가 버렸다. 며칠 내내 연기를 뿜어냈던 공장은 더 힘차게

검은 연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강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마을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다. 새벽이면 먼 곳에서 온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마을을 지나갔고, 저녁이면 버스는 그들을 다시 싣고 되돌아갔다. 그리고 우리 형은, 그 무리에 합류하진 않았지만 새벽이면 공장 쪽으로 올라가고는 했다. 일주일이나 된 일이라는데, 나는 오늘에서야 그가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이 공장문제로 아버지와 싸우는 동안 나는 할아버지와 그물을 정리하려 마당으로 나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물을 정리하고 계시지 않으셨다. 바다에서 돌아온 후에는 그물을 정리하는 게 그의 일과였는데, 그는 다만 그물을 발치에 뭉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성이는 뭐할라고 공장 갔다 카든데.”

“.....”

“그래, 니가 뭘 알겠노... 니 아베도 성이도 참.....”

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비척비척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을 아저씨들은 바다가 더러워졌다고 말했다. 물고기들이 바다 위로 뚱뚱 떴다고 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상심이 크실 거라고, 네가 잘 위로해 드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위로해 드릴지 몰랐고, 할아버지가 스스로 기운 차리실 거라고 생각 했다.

나는 집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무서워서였다. 나는 어딜 갈까, 하다가 학교 쪽으로 타박대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강가에 영이가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강이 까맣게 물든 이후로 노인은 그 곳에서 낚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강가에 영이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영이는 제 집에 있었다. 작지만 아담하고 깨끗한 양옥집의 마당에서 영이는 개미떼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 애는 모나미 볼펜과 누런 종이를 들고 있었다.

“영아! 뭐 해?”

“이것 봐.”

영이는 줄지어 힘차게 행군하는 개미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누런 종이를 땅에 놓고, 행진하던 개미들 중 한 마리를 손가락으로 꼬집어내 종이 위에 올려놓았다. 영이는 볼

펜을 개미의 옆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 천천히 볼펜을 움직였다. 검은 볼펜색이 길을 이었다. 개미가 허둥지둥 볼펜길 위를 따라 뛰어왔다.

“짠, 신기하지!”

영이는 이를 드러내 씩 웃으며 내게 볼펜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길을 만들기는커녕 제대로 한 번 그어보지도 못했다. 개미떼 중 한 마리가 내 발가락을 물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얼른 개미를 내 엄지발가락에서 떼어 낸 다음 두 손가락으로 짓이겨버렸다. 더럽게 느껴져서 얼른 손을 종이에 비볐다. 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날 봤다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할배가 그런 거 죽이지 말랬는데...”

“할아버지가?”

“다음에 개미가 똑같이 해줄 거라고. 그래서 가끔씩 빵도 주구 밥도 줘야 한다구. ... 고시레 해 줘야 한다구 했다.”

“미안.”

나는 영이가 시무룩한 것이 싫어 얼른 사과했다. 그러다 보니 슬그머니 개미에게도 미안해졌다. 종이 위에 있던 개미는 제 무리에 얼른 합류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마루에 가 앉았다. 개미에게 물린 발가락이 너무 따가웠다. 영이는 물과스를 찾아주고서는 다시 개미떼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 마리를 데려와 길을 따라오게 했다. ‘8’자 모양으로 개미를 빙글빙글 돌렸다. 개미는 어지럽지도 않은지 볼펜을 잘만 따라왔다.

“느 할아버지는 어디갔어?”

“할배? 몰라. 아침에 나갔어.”

“며칠 내내?”

“응, 며칠 내내. 어디 가냐고 물어도 암 대답도 안 해, 할배.”

“그렇구나.”

“근데 조만간 아침 내내 나가는 거 안 한다구 했어. 아, 맞다, 일주일 뒤에 우리 아빠 온다. 새엄마랑 새동생이랑.”

나는 그 말에 달리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새엄마라고 하면 늘 원래 있던 애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쫓아낸다고 책에 쓰여 있었다. 헨델과 그레텔에서도, 콩쥐팥쥐에서도 그랬다.

거기다가 내가 얼마 전에 엄마아빠의 얘기를 엿들었을 때 나는 영이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다. 영이의 교통사고로 죽고, 영이 아빠가 재혼을 할 때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영이를 노인에게 보내라고 했었다. 영이를 싫어한 모양이다. 그런 아줌마 밑에서 영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틀림없이 신데렐라처럼 먼지 투성이에 항상 걸레를 들고 집안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빠 진짜진짜 오랜만에 본다.”

영이는 히- 하고 웃었다. 새엄마에 대한 호기심이나 걱정보다는 아빠를 본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다. 나는 영이에게 왜 그들이 갑자기 오냐고 묻고 싶었다. 그 푹푹하고 야무진 영이가, 자기를 버린 사람들이 온다는데도 저렇게 즐거워하는 게 좀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다. 갑자기 영이가 너무 안 돼 보여서, 나는 노인의 행방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다시 영이를 위해 비밀기지를 찾기로 했다. 마을에는 마땅히 비밀기지 할 만한 곳이 없으니, 목적지는 공장 근처였다. 저녁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는 입에 빵 하나씩을 물고 공장 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공장 근처에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다는 것을 마을의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줄기를 따라 위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냄새가 너무 역하게 나서 조금 떨어져서 가기로 했다. 어둠 속이라 그런지 강이 더, 더, 더 까맣게 보였다. 예전의 밤에는 그냥 까만 색이었는데. 달빛이 비춰서 예쁘게 반짝였었는데. 하지만 어둠속에서 본 지금의 강은 까맣게 죽어서 흐르고 있었다. 안에서 흐물흐물한 액체 괴물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다.

“누렁이네 아저씨, 이제 채소밭 안 한 대.”

영이는 강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밭을 보며 말했다. 누구네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누구네 아저씨도, 누구네도, 누구랑 누구네도..... 영이는 친근한 마을 사람들을 쭉 부르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채소가 검은색으로 염색 돼서 나올 거라서, 그런 거 먹으면 배 아파서 안 할 거래.”

“그럼 바다에 낚시하고 그물 치러 간대?”

“그것두 안 한 대. 바다 아래 물고기들도 염색 돼서, 그런 거 잡으면 안 된대.”

“그럼? 그럼 공장 간대, 다들? 우리 할아버지두?”

“몰라, 모르겠어.”

영이가 고개를 젓는데 버스 한 대가 반대편으로 터덜거리며 지나갔다. 공장 사람들을

실은 버스 같았다. 공장 일 끝났나부다, 하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콕! 하고 잡았다.

“집에 안 기 들어가고 가씨나랑 밤중에 뭐 하노.”

“할배! 우리 비밀기지 찾고 있었어요.”

영이가 웃으며 노인에게로 쫓르르 달려갔다. 몹시 기빠 보였다. 나는 얼얼한 어깨를 붙잡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험령한 모시옷을 입고 어깨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둘러메고 있었다.

“할배, 어디 가요?”

“아무 데도 안 간다.”

“그럼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펄떡 집에 드가라.”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가던 길을 성큼성큼 가기 시작했다. 평소의 둔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거의 민첩하기까지 한 움직임이 약간 의문스러웠다. 그런데 대체 어딜 가는 걸까? 우리는 잠시 숨죽이고 있다가, 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파묻히자 약속이나 한 듯이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러니까 막 공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에, 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멈춰서고 말았다. 뒤돌아보니 형이 뛰어오고 있었다. 나와 영이가 당황한 채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형이 뛰어와 우리를 붙잡았다.

“이 쪼끄만 게 어디서 늦게까지 싸돌아다니고 있어! 가자! 엄마랑 아버지가 너 찾아. 어라, 너는 또 왜 같이... 하여튼 요 꼬꼬마들이.”

“근데 나...”

“시끄러워! 너 때문에 한밤중에 이게 뭐 꼴이야.”

나는 당황한 채로 형의 손에 붙잡혔다. 반항해 봤자 소용없다는 것쯤은 슬하게 겪어 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

“너들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야, 근데 너 내일 학교 가서 학교에 있는 네 물건 대충 가져와봐.”

“어? 왜?”

“몰라 임마. 조만간 다른 데로 다시 갈 것 같다. 서울이나 아니면 청주로.”

“아버지가 그랬어?”

“됐으니까 그냥 챙겨라, 응?”

형은 내 머리를 쥐어박는 시늉을 했다. 영이는 옆에서 웃고만 있었다. 곧 저도 아빠를 따라 도시로 갈 거라는, 그런 느낌이 났다.

형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도 따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영이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짙은 밤색 하늘에 먹구름이 꾸물꾸물 모이고 있었다. 여름 시작한 지 언젠데 이제 소나기야, 형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옆에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 밑으로 나를 이끌었다.

“형, 뭐 해?”

“곧 비 올거거든? 그래서 준비심 철저한 형은 미리 커다란 나무 밑에서 대기타고 있는 거란다.”

“형, 근데 아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

“내 나이가 몇인데 빙시같이 맞겠냐. 초딩인 너나 맞지. 아버지 나 못 때려. 휴학계 낸 것 땀에.”

“형 대학 안 가는 거랑 아버지랑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도 없지.”

형은 니가 뭘 알겠냐, 하고 내 머리를 툭툭 쳤다. 옥해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형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 저기 불난다.”

나는 그 말에 펄쩍 고개를 돌렸다. 공장 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 아니다, 아마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일 테다! 나는 놀라서 회색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 화려한 붉은 빛이 공중에서 미친 듯이 흔들렸다. 연기가 치솟았다. 불이다! 불이 나고 있었다, 공장에서!

“헐? 여기 소방서 완전 쪼끄만거 하나 있드만 어찌려고. 폰 놓고 왔는데?”

형은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그 때, 문득 비가 한 두 방울씩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소나기가 쏟아 내렸다. 마치 이 작은 마을 하나를 다 떠내려 보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 소나기였다.

“어... 우리 할배는.....”

영이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형은 주머니 뒤지는 걸 그만하고 공장 쪽을 바라보았다. 막 불붙어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려던 붉은 것은 비에 주춤하더니 천천히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형과 함께 멍청하게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나는 그만 노인과 그가 젊어지고 있던 보따리를 생각해 내고야 말았다. 노인의 보따리엔 뭐가 들었으며, 노인은 그것으로 무얼 했을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온 마을에 난리가 났다. 셔틀버스도 오지 않았다. 대신에 양복쟁이 아저씨들이 경찰아저씨와 온 마을을 쏘다녔다. 그들은 공장을 조사했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얻으려 애썼다. 그리고 강은 여전히 악취를 품고 검정색으로 흐르고 있었다.

“공장 불타다 만 거 뉴스에 났다.”

영이와 놀다 집으로 돌아온 내게 형이 대뜸 말했다. 누군가 방화를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고, 그 방화범이 마을 주민 중에 있다는 게 뉴스 내용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내가 그 방화범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는 눈치여서 다른 말은 더 할 수 없었다. 나는 입을 꼭 다물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대청마루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에게 물었다.

“근데 만약에, 그 불 지른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그냥 잡혀가는 거지.”

“잡혀가서?”

“감옥에 몇 년 있거나 아니면 돈 엄청 물어주거나.”

“그럼 잡히면 안 되는 거구나?”

“왜, 네가 불 질렀냐?”

“아니야!”

나는 형의 의심스런 눈초리를 뒤로 하고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가슴이 두근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이 불을 질렀을 거라는 게 나의 비밀스러운 추측이었다. 노인은 분명 수상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그걸 들고 공장 쪽으로 갔었다. 그리고 그는 오늘 강가에도, 집에도 없었다. 경찰과 공장 아저씨들을 피해 도망간 게 틀림없었다. 노인이 왜 공장에 불을 질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동물들에게 음식을 나눠 줄 만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으니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노인은 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았던 노인은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도망을 간 건 아닌 것 같았다. 늘 그랬듯이, 노인은 밀짚모자를 쓰고 강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전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강이 까매졌다는 것과 노인은 더 이상 미끼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물고기 대신 쓰레기와 냄새나는 검은 덩어리를 낚고 있었다.

그런 노인의 옆에서 영이와 나는 땅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한 뼘 한 뼘 내 땅을 넓히고 있는데, 노인이 문득 나를 돌아보았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나는 히 하고 웃었다. 그런 나를 묵묵히 보던 노인이 말했다.

“느 할아버지는 안 왔드나.”

“안 왔는데요.”

“경찰도 안 찾아왔고?”

“어제 왔다가 갔대요. 왜요, 할아버지?”

“아이다. 됐다.”

노인이 입을 다물고 낚싯대를 만지작거리자 영이가 약간 울상인 얼굴로 그를 보았다. 시선을 안 그가 영이를 내려다보았다. 말해 보라는 표정에 영이가 주저하며 말했다.

“할배는 아빠랑 같이 안 가요?”

“할배는 여기 있을란다.”

“왜요? 할배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여긴 내 고향이다이가.”

노인의 대답은 그게 고작이었다. 영이는 더 이상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 돌을 튕겼다. 돌이 선 밖으로 나갔다. 갑작스레 우울해진 영이 덕에 더 이상 놀이가 재밌게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괜히 강에 돌을 퐁퐁 던졌다.

문득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낚싯대를 올렸다. 까맣게 되어버린 낚싯줄을 따로 빼 내어 검은 봉지 안에 넣었다. 평소와는 달리 재빠른 몸놀림이었다. 나는 문득 강 윗길에서 내려오는 양복 아저씨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들은 그들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리려는 노인을 붙잡았다.

“할아버지! 잠깐 시간 좀 주시죠.”

“공장이나 다시 고치지 뭐 놈의 지랄병은.”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하고는 걸음을 옮겼다. 영이가 어리둥절해 있는 내 손목을 잡고 재빨리 노인의 옆으로 따라 붙었다. 노인이 영이의 손을 꼭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줄지에 서로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가는 꼴이 되어버렸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악감정 가지신 분 할아버지랑 저 배 위에 사는 할아버지 밖에 없어요! 망할 영감탱이들. 증거 나오면 곧장…….”

노인은 그 말에 획 뒤돌아보았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져서는, 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화난 음성으로 고함을 쳤다.

“그 감정 가진 게 내랑 가 뿐인 줄 아나!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농사 망치고 배 망친 느그 누가 좋아하는지! 마을 다 말아먹을 새끼들한테 악감정 안 가진 골 빈 새끼가 어딴는지 함 물어봐라 안 카나!”

노인은 씩씩거렸다. 그리고 영이를 잡아끌어, 멍해져 있다가 막 화를 내는 양복아저씨들을 뒤로 하고 그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집 앞에 오자 노인은 영이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곧장 어디론가 걸어가 버렸다. 남겨져서 멍뚱멍뚱 있던 영이가 문득 집 앞에 대여 있는 검은 차를 발견했다. 영이의 표정이 환하게 변했다.

“아빠야?”

영이는 고개를 끄덕이고선 조용히 해 보라는 듯 쉬잇, 하고는 대문에 바짝 붙어 섰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영이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거기 문 밖에 영이니?”

대문 안에서 들려오는 목직한 저음에 영이가 깜짝 놀란 듯 문에서 떨어졌다. 영이는 나에게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곧장 문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아빠! 하는 울음기 섞인 목소리가 대문 밖의 나에게 전해졌다. 곧 통명스런 투가 묻어있는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가 왜 울어, 울긴…….

갑자기 비가 한 두 방울씩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소나기 인가보다! 나는 얼른 우리 집으로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노인과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는 모습을 보았다. 식구들은 죄다 방에 들어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할아버지가 뭘 하든지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섭이 왔나.”

할아버지는 딱 그 말만 하시곤, 친구와 할 얘기가 있으니 나더러는 집안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나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마루에 앉은 할아버지와

노인은 무언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언뜻언뜻 기름단지나 고물상 등의 단어가 들려왔지만, 나에게는 그 단어들만으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 다음 날에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강물이 더 불어났고 물줄기도 세졌다. 비바람이 정말 굉장해서 나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영이를 만나러 갈 수는 없었다. 그 다음날도 비가 왔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어김없이 비가 퍼부었다. 이번엔야 말로 비가 마을을 물에 휩쓸려 사라지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며칠이 더 지나고서야 비가 조금 잠잠해졌다. 그 며칠 동안 굉장히 심심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나는 날씨가 꺾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영이를 떠올렸다. 아빠와 새엄마를 만난 영이. 그 날 이후로 만나지 못했던 영이. 영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영이 집으로 가니, 처음 보는 무뚝뚝한 아줌마가 영이 대신 나왔다. 영이의 새엄마인 것 같았다. 영이는 어제 아침에 집을 나가서 돌아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담담한 어조로 말을 하는 그녀가 너무 꺼림직 하게 느껴졌다.

“그럼 영이는 언제 돌아와요?”

“모르지. ... 뭐 제 할아버지 옆에 있으려나?”

아줌마는 곧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그 앞에 멍청하게 서 있다가, 역시 계모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강으로 향했다.

강은 다시 거의 원래대로 돌아 온 듯 보였다. 그간 내렸던 비가 검정들을 다 쓸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강은 아주 약간은 우울해 보였고, 거의 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다.

예상했던 대로 노인은 거기에 있었다. 낚시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찹쌀떡들을 강에 뿌리고 있었다. 고시레! 부슬부슬 내리는 비 소리 속에서 그의 웅 목소리가 울렸다. 고시레, 고시레!

그는 우산을 쓰고 있지 않았다. 우비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냥 밀짚모자만을 쓴 상태로, 그는 강에 없을지도 모를 강의 아이들을 향해 고시레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 오는데 밀짚모자라니. 오늘은 낚싯대도 없다. 나는 오늘따라 그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다가갔다. 나를 발견한 노인이 정색을 했다. 그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선 짹 소리를 질렀다.

“여기가 어디라고! 집에 드가라, 빨리.”

“영이는…….”

“집에 가 봐라. 얼른!”

나는 당황스러웠다. 집에서는 노인에게 가라고 했는데, 노인은 집으로 가라고 한다. 영이는 어디 간 걸지? 왜 아무도 영이가 간 곳을 모르는 걸까?

“고시레!”

노인은 마지막 찹쌀떡을 강으로 던졌다. 그리고 서서 굳은 표정으로 강을 바라보았다. 물살이 켜다. 물고기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다. 대신, 물이 점점 검정으로 채워지는 게 눈에 보였다. 나는 공장 쪽을 보았다. 다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다 끝났됐다 이제…….”

노인의 쉼 음성이 들렸다. 절망과 체념, 우울함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음성이었다. 나는 노인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피부에 시퍼렇게 선 핏줄이 무서웠다.

“할아버지?”

“아가,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신 오지 마라. 올 데가 못 된다, 여간…….”

다시 비가 거세어졌다. 중얼거리고 있는 노인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자동차가 노인의 옆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자동차는 검은 매연을 토해내고 있었다. 뜨거운 연기에 기침이 나왔다. 그리고 차에서 검은 양복 아저씨들이 내렸다.

“이 영감탱이!”

그는 다짜고짜 노인의 떡살을 잡았다. 노인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가 땅에 떨어졌다. 노인은 서슬 퍼런 눈으로 그를 보았다. 왜소하고 마른 노인의 몸이 뚱뚱한 아저씨의 몸과 대조되었다. 노인의 종잇장 같은 몸이 흔들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상황에 깜짝 놀라 울음이 터졌다. 그런 나를 향해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다. 강물이 거세어졌다. 썩아아아 하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노인의 밀짚모자가 구두에 짓밟혀 더러워졌다. 햇볕냄새가 났던 모자는 발길에 차이고 바람에 휩

슬러 강에 휩쓸려 버렸다.

“당신! 배에 숨겨뒀던 기름단지랑, 당신이 준비해뒀던 것들 우리가 찾았어, 영? 당신이 뭘데 공장에 불을 질러, 불을! 당신 때문에 우리 사업이 늦어졌잖아! 약속도 깨졌다고, 영?”

“배에 있던 영감도 빠기다가 두들겨 맞았어. 영감님은 그냥 순순히 협조하시죠.”

우리 할아버지가? 나는 그가 말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라는 걸 알았다. 손에서 힘이 빠져 우산이 떨어졌다. 앙앙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영이의 아빠와 새엄마도 있었다. 그들은 노인을 돕지 않고 구경꾼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양복쟁이 아저씨가 노인을 내팽개치자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향해 한 마디씩 했다. 그러나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한 영이의 아빠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가, 뿌리침을 당하고 인상을 찌푸린 게 전부였다. 훗날 들은 건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구경만 했던 것은 그들에게서 이전에 조금씩의 돈을 매 주 받아서였다고 했다. 마을에 염색공장의 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대신 주는 돈이었다고, 경찰이나 관청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쥐는 돈 때 문이었다고…… 그랬다고 했다.

“그래, 내가 했다.”

노인이 양복쟁이 아저씨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느그가 하도 껄뽀해서 내가 했다. 그런데 내가 했다는 증거 있나? 기름? 야야. 배에 폭탄이 실려 있다 캐도 그건 상관없는 기라. 갈매 할배가 기름 좋아해서 기름 모으는 건데 그제 느그가 상관할 일인가?”

“할배! 할배에!”

문득 영이의 목소리가 강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강 건너편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쫓딱 맞고 발을 동동 구르는 영이가 보였다. 거센 검은 물길이 영이와 이 곳을 가로막고 있었다. 영이는 ‘날으는 공룡과 엘마’를 품에 안고 있었다.

“물고기도 다 디졌고 강도 드러워졌다! 강이 죽었다고! 공장? 공장 말고 느그 불태워도 저 강 값 못 하는 기라! 저게 무슨 강인데 느그가 함부로 죽이는 기고! 돼지만도 못한 새끼들아, 어?”

“아니 이 할아버지가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노인의 어깨가 다시 잡혔다. 노인에게 달려가려는 나를 누군가 붙잡았다. 형이 굳은 얼굴로 내 팔을 꼭 잡고 있었다. 울음소리에 파묻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비와 내 울음소리 속에서 사람들이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획 뒤돌아보았다. 아저씨가

노인을 내던지고 있었다. 힘없는 노인의 몸이 강기슭으로 떨어졌다.

“아이구!”

“영감님!”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 노인은 그대로 물길에 휩쓸려 강 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노인은 당황하는가 싶더니 두 팔을 놀렸다. 헤엄을 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노인의 힘보다 검정이 더 세었다. 그의 모습이 까매지고 곧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할배!”

영이가 갑자기 강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동시에 노인의 모습이 강에 드러났다. 노인은 강 가운데 있는 바위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노인이 영이더러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영이가 영영 울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영이의 머리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타났다가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노인이 이길 수 없는 물길을 어린 아이가 이길 수는 없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었다.

“영아! 아이고, 오짜노 영이……!”

“누가 할아버지를……”

사람들의 소리에 파묻혀있던 양복쟁이 아저씨는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는 다른 아저씨들과 함께 슬금슬금 다시 차에 올라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는 것보다 그가 도망가는 게 더 빨랐다.

“오마, 영이가!”

누군가의 비명에 나는 얼른 영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없다! 영이는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누군가는 경찰을 부르고, 누군가는 119를 부르고 있었다. 빗줄기가 더 거세어졌다. 노인은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고시레…. 검정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노인은 기어이 바위를 놓치고 말았다. 아니, 손을 일부러 놓은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이고, 오짜노, 오짜노……!”

사람들의 소란스러움과 빗소리 속에서 나는 양양 울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나를 형이 안았다.

내가 본 영이의 모습은 그게 마지막이었고, 마찬가지로 나는 그 날 이후 더 이상 노

인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은 며칠 뒤 할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그 곳을 떠났다.

우리는 그 곳에서 우리의 흔적을 되도록 없애고 갔다. 나와 놀던 영이는 사라졌고, 가끔 함께하던 노인이 사라졌고, 지내던 집을 일부러 허물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내 머리 속에서 그 곳을 말끔히 지우려고 애 쓰셨다. 나를 학교에 보냈고, 학원에 보냈고, 도시에서 살게 하셨다. 내 머리 속에서 강을 지우려 하셨고, 영이를 지우려 하셨고, 노인을 지우려 하셨다. 그리고 그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나는 간혹 그들을 기억하고 그 강을 기억했으니 부모님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 셈이다.

그리고 이젠 내가 어른이 되어서야 들은 이야기인데, 영이는 우리 가족이 이사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강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강바닥에 있는 바위 사이에 발이 끼여 있었다고, 그래서 강 위로 더 못 나온 거라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함을 느꼈다. 영이가 고작 그런 걸로? 그 애는 강에 익숙한 아이였다. 발이 끼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빼 내어 살아남았을 아이였다. 나는 문득 그 아이의 아버지와, 그리고 새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강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인은 나에게 다신 마을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사실 어른이 되어서는 그 곳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돌아가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그 곳의 강에 뿔가루를 뿌려 달라 하셨기에, 다시 그 곳에 들르게 되었다.

그 때 들린 마을은 아주 황폐해져 있었다. 공장은 그 때 손녀와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속보에 실려 사람들을 경악하게 해 망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요, 강줄기 하나로 먹고 살던 주민들에게 다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돈을 받고 강을 그대로 놔 둔 주민들에게 성금이 모일 일도 없었다. 마을에는 이미 몇 가구 남아 있지 않았다. 그 곳이 곧 지도에서 지워지리라는 것은 목인된 이야기 같았다.

나는 노인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다는 마을 어른의 말을 기억해 냈다. 강 좋아하시던 분이니 강이 되셨겠지,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묘하게 납득이 갔다. 고시레, 매일 고시레를 외치던 그였으니 그 몸을 스스로 강에 내 준 거였겠지.

나는 도시로 되돌아오는 차에서 다시 죽은 강을 되돌아보았다. 새 한 마리 날지 않은 죽은 강이 시야에서 흐려졌다. 그리고 왜 노인이 다신 오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해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더 이상 이 죽은 강이 있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어린 기억 속의 이곳이 완전히 사라질 것임을 예감했다.